



자 조 금 소 식

2008년 양돈자조금 600원 거출 개시

양돈산업 어려운 시기, 자조금 역할 기대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이 자조금 거출금액을 400원에서 60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1월1일부터 도축 돼지 1두당 600원이 거출된다. 이에 따라 올해 양돈자조금은 농가거출금 74억1천만원, 정부지원금 50억원, 이익잉여금 3억원, 기타조성금 10억원 등 총 137억1천만원이 조성된다.

이렇게 조성된 자조금은 △소비홍보사업에 83억8천7백만원(61.2%)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에 24억4천4백만원(17.8%) △자조금 거출홍보 활동 1억7천2백만원(1.3%) △조사연구 2억4천2백만원(1.8%) △장수수료 3억7천만원(2.7%) △운영관리 6억1천5백만원(4.5%) △예비비 14억8천만원(10.8%) 등으로 운용된다.

특히 올해는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을 더욱 중점 추진하는 한편,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사업과 소비자 양돈장 견학 등을 확대 실시하며, 시식회를 매뉴얼화해 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양돈인력 양성교육도 진행한다. 또 TV광고를 비롯해 대형할인점을 통한 소비홍보 행사 등을 개최하여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조금 거출금이 상향되어 자조금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양돈산업에 자조금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돈자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조금이 양돈농가를 위한 자금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의 발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007년 양돈자조금 109억8천만원 조성

올해 자조금 137억1천만원 조성 계획

지난 07년도 양돈자조금이 109억8천만원으로 조성됐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양돈자조금 109억8천만원을 조성하고, 98억4천만원을 집행하여 11억4천만원을 이월한다고 최종 집계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농가거출금이 52억7천만원, 정부지원금 49억2천만원, 기부금 10만원, 이익잉여금 7억4천9백만원, 예치금 이자 3천8백만원 등으로 총 109억7천8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는 양돈자조금 거출금이 도축돼지 1두당 60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양돈자조금 조성액이 농가거출금 74억1천만원, 정부지원금 50억원, 이익잉여금 3억원, 기타조성금 10억원 등 총 137억1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림부 양돈자조금 사업 감사

농림부가 양돈자조금 등 축산자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농림부 감사관실은 '04년부터 '08년 현재까지 자조금으로 추진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무자조금이면서 지난해 정부로부터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자조금을 대상으로 1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양돈협회와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농협중앙회 등 축산단체와 자조금관리위원회, 도축장 등 수납기관에 대해 감사를 한다.

농림부는 이미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사업계획서와 재원조성 및 지출현황 등 감사관련 자료를 요구, 감사에 들어갔다. **양돈**

